영적인 음행체질 개선법

(나훔 3장 1절~19절)

1.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떼,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4.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5.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6.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 거리가 되게 하리니
7. 그 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음행체질 개선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영적인 음행체질 개선법'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순환과 체질(體質)입니다. 순환이란 기의 원활함이고, 체질이란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나누어지는 신체적 특성을 말합니다.

예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오셔서 충고를 하나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듣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체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태양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줄이면 건강하게 사역을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충고였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몸을 네 개의 체질로 나누어 생각하는 한의학 이론을 사상의학(四象醫學)이라고 합니다. 체질에 맞추어 음식과 생활습관과 약을 사용합니다. 물론 사람이 체질에 맞는 것들만을 선택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한의사들도 체질에 맞는 음식만을 골라먹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체질에 안 맞는 식사나 생활습관을 장기간 유지했을 때에 변화가 생겨서 변성 체

질이 된다고 합니다. 돼지고기가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 삼겹살을 좋아해서 평생 먹다보면 변성 체질이 되고, 한계에 달하면 병이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체의 질병을 외적 요인에서만 찾으려하지 않고 체질 차원에서 밝히려는 한의학의 발상이 돋보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의미가 깊은 비유적 소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체질과 타락 후의 체질이 달라졌음을 전제로 삼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유와 결과가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의 체질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성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두드러진 특성은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본문을 보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죄악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4절을 보면 니느웨 성을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영적인 음행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은 본래의 인간 체질과 비교할 때에 음행 체질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인간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참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상태가 본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타락한 인간은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쁨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본질적인 결함이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본질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에 마귀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 것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외에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기쁨거리들이 넘쳐난다고 속였습니다. 기쁨이 상실된 결함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기쁨을 찾아 나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고 간교함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변성 체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의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음행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본래 신성한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제외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음행에 대한 욕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면 된다는 속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외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에서는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를 잘 길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음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행의 핵심에는 기쁨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의 대상에게서 기쁨을 찾으려는 것이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참 인간의 사전에는 “~하면 좋겠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중에 있는 사람이 “결혼하면 참 좋겠다.”라는 음행의 욕구를 표출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향해 “~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내가 변성 체질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마음이 음행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앗수르는 당시 중동의 패권국가였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입니다. 이 말은 니느웨가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음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곧 음행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니느웨 같은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들 또한 같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은 바벨론과 메데의 연합군이 니느웨를 짓밟을 때에 나타나게 될 모습이 예언됩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로 묘사된 니느웨에게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교하고 농염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적인 의미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은 포악함입니다. 강압적이 되고 거짓이 가득차고 늑탈에 능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힘으로 강압하고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니느웨와 같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패권국가였던 앗수르의 니느웨를 음녀로 표현한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3~4절에서 바벨론을 음녀로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서 거짓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배우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됩니다.
음녀는 이렇게 하나님 이외의 기쁨거리들의 이름들을 마음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처럼 추구하는 대로 성취를 하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앗수르의 니느웨 모습이었습니다.
앗수르가 기쁨을 위해 붙잡았던 대상들 중에는 돈이나 권력이나 영토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얻는 방법은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앗수르는 실제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여 정복을 이루었고 소원했던 가치들을 획득하는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에 보여줍니다. 앗수르와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마술처럼 대단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대상이 재벌이나 정치인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 1억을 버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주식으로 하룻밤에 재산이 1조씩 늘어나기도 합니다. 돈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마술과 다름없습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술사처럼 대단해 보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가 국무총리에 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체 무슨 마술을 부렸기에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행에서 비롯된 변성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 좋겠다.”라는 말의 목적어가 되는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들이 실현되지도 않고 실현되더라도 감질나게 찔끔찔끔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성공시키는 자가 있다면 대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앗수르의 니느웨가 그 대표였습니다. 다른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이 보기에 니느웨는 마치 마술을 부리듯이 세상의 가치들을 획득하여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질탕(跌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 나서 정도가 지나치도록 흥겨운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색에 빠져 질탕하게 살다 온 집안이 망하고 말았다, 회사의 상사와 부하가 억대 계약 체결을 축하하면서 질탕하게 즐기다가 헤어졌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학업을 잊고 질탕한 유흥에 빠졌다”라는 말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느웨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질탕함과 어울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루면 좋겠다, 가지면 좋겠다, 누리면 좋겠다, 도달하면 좋겠다고 여겼던 목적어가 되는 모든 가치들을 마술처럼 손대는 대로 다 얻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을 아실 것입니다. 미다스 왕은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시도하고 손대는 일마다 막대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미다스의 손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마술을 부리는 음녀로 비유된 니느웨 성이 바로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교계조차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몇 천억씩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대형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니느웨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밀어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예배당은 음녀가 됩니다. 독립된 예배당을 가지고 싶지만 상가 건물을 떠나지 못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수천억짜리 예배당은 마술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예배당을 건축해야만 목사님과 당회와 교인들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음행을 저지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음행하는 변성 체질은 교회와 세상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생각하는 모든 기쁨거리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예배당 건축이나 교인 숫자를 늘리는 부흥에 관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수익, 나라의 부강함, 일류대학 합격, 건강하게 오래살기, 멋진 사람과 결혼하기 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75억 중에 극소수의 신앙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음행의 욕구를 발동시키며 살아갑니다. 마음으로는 돈을 벌어서 질탕하게 음행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돈이 안 벌립니다. 자녀가 엘리트 코스를 밟는 모습을 보고 기뻐함을 통해 질탕한 음행을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어주지 않을 뿐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약 2,6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중이 아니라면 삶은 음행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기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이름들을 기쁨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결과는 니느웨 성과 같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체질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변성된 음행 체질일 수 있습니다. 돈의 갈증을 위해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변성된 음행의 체질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헛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기쁨을 추구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체질이 음행의 체질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음행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이 세상을 향하여 좋겠다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그 좋겠다고 여기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울해합니다. 이로부터 근심 걱정 시기 질투가 나타납니다. 좋겠다는 말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전에 좋겠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 음행의 체질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기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음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일뿐 결코 기쁨을 얻기 위한 음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서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사업을 하는 내내 음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 또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해야만 합니다.
목회를 할 때에도 교인이 늘고 예배당이 커지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한다면 목회로 음행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신경 써야 할 일은 교인이 늘거나 줄거나 교회가 커지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음행의 체질은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고혈압 환

자가 혈압 약을 먹으면 정상이 되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음행의 체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억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좋겠다고 연발하게 하는 나의 변성 체질을 주목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적으로 삼는 기쁨의 대상들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음행의 체질을 억누르는 동안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이 억눌린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들림 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억제되지 않는 한 음행의 체질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체질은 "~하면 좋겠다, ~이루면 좋겠다, ~도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심정에서 화가 나고 걱정 근심 불안 등으로 나타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로 음행의 체질을 억누름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의 이유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원적으로 음행의 체질을 가지고 하는 일마다 음녀의 행위를 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음행의 체질을 억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따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에덴을 회복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